

실손보험 기본·특약형으로 분리

실손보험 개선방안 발표

기본형 보험료 평균25% 싸

병원 2년 안 가면

1년간 보험료 10% 할인

보험업계 “비급여 수가도 표준화해야”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가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는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여주고 그렇지 않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과도한 심비 보장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급증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실손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에서 적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의료비(비급여)를 보장하는 상품구조 등으로 인해 과잉진료, 의료소비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써 손해를 상승과 보험료 인상이 되풀이되면 향후 지속 가능성이 의문시된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보유 계약 건수는 3266만건으로 국민의 약 65%가 가입했지만 보험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를 타간 비율은 23.2%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손해율은 지난해



서민금융 지원현황 점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왼쪽)이 20일 오전 서민들을 위한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은평구 신한은행 불광동지점을 방문하고 있다.

123.6%까지 상승했다. 적정 손해를 100%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결국 일부 가입자의 과잉 진료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다수의 가입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개선안은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가 빈번한 보장내역을 특약으로 분리해 의료소비를 막고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기본형은 과잉진료가 빈번한 보장내역을 뺀 대신 보험료가 평균 25% 싸다. 특약은 도수·체외충격파·중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 3개 진료군으로 분리되며 본인부담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보험금 무청구자에 대한 할인제도도

시행된다.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해 보험료를 1년간 10% 이상 할인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필수적 진료를 받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보험금 미청구 여부 판단 시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된다.

보험업계는 손해율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과잉진료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한데 비급여 진료 표준화 작업이 더딘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도수치료의 치료비가 병의원별로 최대 1700배까지 차이

가 나는 등 동일한 진료행위에 대한 가격차이가 너무 큰 것이 문제”라며 “합리적인 진료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비급여 치료비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이 진료를 많이 받거나 비싼 항목부터 코드와 명칭·행위정의를 우선 표준화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중장기적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진료 이용행태와 비급여 항목 표준화 추진경과 등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과잉진료 항목이 추가 발견되면 기본형의 안정 운영을 위해 특약으로 분리하는 것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

IT업계 신년 점괘 이벤트 다채

얼굴인식 관상 앱·취업 특화 운세 서비스 눈길

“내년 나의 운세는 어떠한가?” 점(占)과 거리가 멀어보이는 IT 업계에서 신년 점괘 이벤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들은 사용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체들이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모바일 다음에서 1만원 상당의 운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2017 신년운세 이벤트’를 내년 1월 19일까지 진행한다. 이 이벤트에서는 새해 흥운, 월별운, 항목별 운세를 알려준다.

다음 앱에서 운세 배너 또는 팝업 이미지를 클릭하면 운세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에 한사람당 한번만 참여할 수 있으며 입력된 개인정보는 저장되지 않는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얼굴인식

기술을 적용한 신년 운세 앱 ‘운수도원’을 최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 회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된다.

운수도원의 관상 서비스는 앱 화면의 얼굴 가이드 선에 맞춰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면 몇초 내에 얼굴형과 눈썹, 눈, 코, 인중, 입 등 부위별 생김새에 따른 운세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손금 서비스도 손바닥을 촬영하면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 재물선의 분석 결과를 알 수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구직자를 위한 전용 운세 서비스를 선보였다. 인크루트의 ‘2017 토정비결’에서는 면접 보기 좋은 날짜, 시험에 유리한 장소, 입사지원서를 언제 제출하면 좋을지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운세를 볼 수 있어 취업 운이 급급한 달을 골라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

신산업 공공데이터 개방 3년간 확대

행정부, ‘제2차 공공데이터 제공·이용활성화 기본계획’ 발표

앞으로 3년 동안 자율주행, 가상현실 등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공공데이터 개방이 대폭 확대된다.

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지능형 공공데이터가 적극 발굴되는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첨단산업 육성이 본격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2017~2019)’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20일 확정·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기업과 신산업에 활용성이 큰 국가 융합형·지능정보 데이터 개방을 3년간 확대한다.

이에 따라 AI기반 농업예측 정보(농식품부), 지능형 교통사고분석 정보(도로교통공단), 한국형 정밀의료 코호트 정보(복지부), 재난안전정보(안전처), 언어인식 기반 언어음성 정보(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의 중점 데이터가 개방된다.

공공데이터와 민간이 보유한 공공재 성격의 데이터를 보다 유용하게 융합하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능형 데이터도 발굴, 내년부터 부문

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차세대 국가성장정책 견인할 자율주행, 가상현실(VR) 등 신산업 분야를 선정,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별도 기업, 학계, 연구소, 관련 부처가 협업체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공공, 민간데이터를 융통·거래하는 오픈 소스 기반의 플랫폼을 조성하고 거래시장 조성도 지원한다.

또 개인데이터 개방 자기 결정 및 참여제도’를 마련, 국민 스스로가 데이터 개방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가구별 에너지 사용량, 의료정보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과 산업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처 연계·통합을 강화하고, 국가적으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주요 핵심데이터를 대상으로 일원화된 ‘공공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One Gov.)’를 마련한다.

이와함께 민관협업을 확대하고 데이터 생애주기별 품질관리를 강화해 공공데이터의 활용가치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킨다. 글로벌 파트너십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

11월 생산자물가지수, 28개월만에 상승 전환

전년 대비 0.7%·전월 대비 0.4% 올라... “국제유가 상승·농산품 급등 영향”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동기 대비 2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국제유가가 오른 데다 배추와 토마토 등 농산품이 급등한 영향이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2010년 100 기준)는 99.90로 전월(99.52)과 비교해 0.4% 상승, 낙담 켜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0.7% 올라 28개월만에 오름세로 전환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3월 자유화로 인해 6년 만에 최저 수준인 98.42

까지 떨어졌으나 4월 들어 98.67로 반등하기 시작해 6월까지 석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7월 유가하락과 정부의 전기요금 감면 조치가 겹치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후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는데다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이 종료돼 8월 다시 상승세로 전환해 턱달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통계로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선행한다.

11월 생산자물가지수를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물(농산물(-4.9%)과 축산물(-3.0%) 중심으로 전월 대비 2.3% 감소했다. 농산물 중 무와 배추, 토마토는 전월 대비 각각 36.7%, 18.5%, 22.4% 하락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배추는 89.5%, 토마토는 112.8%나 뛰어올랐다.

수산물도 냉동오징어, 조기, 물오징어는 전월대비 각각 24%, 56%, 16.3%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는 각각 64%, 55.9%, 123% 급등했다. 공산품은 제1차 금속제품(1.9%), 석

탄 및 석유제품(0.4%), 전자 및 전자기기(1.7%)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전력, 가스 및 수도는 도시가스 등이 올라 전월 대비 1.9% 올랐다. 서비스는 사업서비스(0.1%) 등이 올랐지만, 금융 및 보험(-0.5%) 내려 전월 대비 보험세를 나타냈다.

특수분류별 생산자물가를 보면 식료품과 신산업은 전월 대비 각각 1.2%, 4.9% 하락했다. 에너지는 1.5%, IT도 1.1% 올랐다.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를 포괄하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5% 상승한 95.36을 기록했다.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출물가지수를 결합한 총산출물가지수는 96.43으로 전달보다 1.3% 상승해 석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뉴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